

문학관 운영의 실천적 방안에 관한 연구

- 강진군시문학과기념관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김선기*

- 목차 -

- I. 들어가며
- II. 국내 문학관 운영방식의 문제점
- III. 문학관 운영의 실천적 방안
 - 1. 상시 프로그램 개발·운영
 - 2. 문학과 타 장르와의 소통
 - 3.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4. 문학관 시설의 활용
- IV. 나오며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문학관들의 운영방식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 문학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연구의 대상은 현재 강진군 시문학과기념관이 운영 중인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상시 프로그램 개발·운영 ▲문학과 타 장르와의 소통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문학관 시설의 활용 등으로 나누어 문학관 운영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코자 하였다.

연구 결과 4가지 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유족이나 지인을 만나는 모임’ 프로그램을 개발해 성과를 거둔 강진군 시문학과기념관의 ‘이달의

* 전남대학교

시문학과 동인' 사례를 예로 들어 논거를 제시하였다. 9명의 시문학과 동인(김영랑, 박용철, 정지용, 이하운, 정인보, 변영로, 김현구, 신석정, 허보)의 유가족을 매회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작가에 대한 생애와 일화 등을 소개함으로써 관람객과 문학관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문학과 타 장르와의 소통에 대한 방안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타 예술장르와의 소통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강진군 시문학과기념관의 '화요일 밤의 초대 손님' 경우 초청 작가를 문학인에 국한치 않고 전 예술분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예술계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방안이다. 문학관은 지역적 정체성을 전제하지 않고는 생명을 지속할 수 없다. 때문에 문학관이 주체적으로 지역 내 학교 교육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넷째, 문학관의 시설 활용에 대한 방안이다. 국내 문학관의 유형은 작가 형 문학관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것은 전시물의 한계성과 프로그램 중첩, 재정적 압박 등을 가져와 문학관으로서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시문학과기념관은 시설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문학관 운영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가 국내 문학관의 운영과 문학프로그램 개발에 미력하나마 기여하길 바라며, 이 논문을 토대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주제어 : 문학관, 문학프로그램, 강진군시문학과기념관

1. 들어가며

한국문학관협회가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2월 말 현재 문학관협회에 가입한 전국의 문학관 수는 58개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현재 건립중인 문학관은 물론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생존 작가의 문학관까지 합하면 70개가 넘을 것이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문예교실을 운영하고 문학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문화 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문학관이 속속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시설물 개념을 탈피하여 문학촌·문학테마파크·문학테마타운 등의 복합문화공간적인 특성을 가진 문학관의 건립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라는 당면과제를, 지역의 정서를 가장 많이 표현한 그 지역 출신 문인들에게서 찾고자 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이는 지방분권의 시대, 각 지방에서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비교 우위의 문화예술의 구심점 찾기라고 볼 수도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중심의 문화예술행사와 그 누림이 지방으로 분산된다는 의미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하는 문학관 건립이 오랜 연구와 검증을 거쳐 그 가치 추구의 타당성을 확보한 뒤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그 지역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명분 맞추기에서 건립되기 때문에 그것의 전신성 혹은 실적 보여주기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문학관들의 운영방식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문학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학관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현재 강진군시문학파기

넴관이 운영 중에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상시 프로그램 개발·운영 ▲문학과 타 장르와의 소통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문학관 시설의 활용 등으로 나누어 문학관 운영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국내 문학관 운영방식의 문제점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문학관은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며, 문화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 요컨대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용이나 독창적인 콘텐츠의 개발,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 등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문학관이 한 작가를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든, 한 문학적 테마를 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든 간에 결코 상실되지 않아야 할 것은 ‘문학’이어야 한다. 즉 문학관은 해당 작가나 그의 문학적세계를 탐방객들에게 이해시키고 그 정신성을 계승시키자는 공통적인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학관은 공공성을 본질로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적 본질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이다.

한 작가나 문학적 테마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공간 안으로 유입할 수 있는 동기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문학관이란 건물이나 공간 자체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는 없는 일이다. 문학관은 ‘문학’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문학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이 문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 문학관들에서 운영되는 문학프로그램은 경우에 따라 전무하거나 설령 있다 하더라도 백일장이나 캠프 등 일회성 행사가 대부분이다. 이런 일회성 프로그램은 행사가 있는 기간을 제외하곤 문학관

내부를 고스란히 빈 공간으로 남겨 둘 뿐 아니라, 무엇보다 문학관으로서의 공공적 기능을 이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국내 문학관 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대략 다음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프로그램 부재와 무차별을 들 수 있다. 국내 문학관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기능은 크게 소장 자료를 관리·전시하고, 문학관련 프로그램 기획·운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학관 프로그램이 부실하여 단순한 전시 공간으로 전락한 실정이며, 나머지 운영 중인 프로그램 또한 작가의 이름만 다를 뿐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거의 차별성이 없다. 문학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백일장, 문학상 시상, 학술심포지엄, 문학 강좌, 시화전 등의 동일한 메뉴들이 그것들이다.

프로그램의 무차별성은 각 문학관들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문학관 내의 전시 내용이나 연차별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동어반복적 현상은 그대로 노출된다. 수년 혹은 10년이 넘도록 전시물이 바뀌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며, 매년 행해지는 행사 프로그램들 또한 내용과 형식 모두 차별성이 없는 실정이다.

둘째, 전문 인력 부재이다. 문학관들의 프로그램 무차별성과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문학관을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 기획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상근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문학관은 상당한 자료를 이미 소장하고 있으며, 향후 개인의 기증이나 구입 등으로 유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다. 그러나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분류하고, 가치를 부여하여 이용객들에게 설명과 안내를 해줄 인력을 갖춘 곳은 몇몇 소수의 문학관을 제외하곤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관리주체가 대부분 지자체들인 작가 형 문학관들이다. 이 같은 문학관들은 지자체들이 지역 홍보와 관광 상품화를 기대하

며 경쟁적으로 설립된 것들이 대부분으로, 해당 지자체의 문화관광 관련 부서의 직원들을 상근시키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 요원들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문학관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전문 인력과 준 전문 인력, 문인이 상근하고 있는 문학관은 자체 프로그램 운영이나 향후 비전에 대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공무원이 파견한 문학관들은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문학 행사를 제외하곤 운영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이다.

셋째, 문학관 내부의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전시 내용물 교체나 문학행사의 다양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문학관 자체 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내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바로 직결된다.

마지막으로 운영비의 절대 부족을 들 수 있다. 운영비 부족은 위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부재, 낮은 공간 활용도의 모든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원 문제는 문학관의 가장 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료 관리에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게 한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작가 형 문학관보다 테마 형 문학관에서 더 크게 부각된다. 특정 작가를 대상으로 한 문학관은 자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큰 재원을 들이지 않고서도 DB화가 가능하지만, 자료가 방대한 테마 형 문학관은 DB를 구축하는 데 부담스러운 비용을 필요로 한다. 실제 국내 테마 형 문학관들은 자료 목록만 정리되어 있을 뿐 DB가 구축된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문학관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측면의 문제들은 각자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정적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러한 인력 부재는 곧 내실 있는 프로그램의 생산을 불가능하게 하며, 독자적 경제력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보니 결국 다시

재정 악화에 빠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Ⅲ. 문학관 운영의 실천적 방안

1. 상시 프로그램 개발·운영

문학관 활성화의 유일한 방안은 지역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 수혜의 대상과 내용이다. 특히 수혜 대상은 내용을 결정짓는 전제가 된다.

먼저, 수혜의 대상으로는 전문연구자보다는 일반인들, 특히 지역민이 가장 큰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상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문학관에 근접한 거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문학관의 설립 목적을 따져야 하겠다. 작가나 특정 문학 양식에 대한 이해, 정신성 계승 등은 분명 문학관의 존재 이유이며 프로그램 개발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다수의 문학관에서는 해당 작가의 문학세계를 연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1년에 한 번뿐인 행사인 데다가 그 참가자들 또한 완전히 전문연구자들이라는 데에 있다. 지역민들은 이러한 학술적 논의의 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잘해야 해당 작가에 대해 간단한 프로필 정도의 지식만을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상시 문학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무엇보다도 문학관의 설립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당 작가를 이해시킬 수 있는 상시 문학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백일장이나 캠프 앞에 작가의 이름만 붙인다고 해서 작가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학교실 운영은 해당 작가의 ‘시(소설)를 읽는 모임’이라든지, 작가의 생애와 관련하여 ‘유족이나 지인을 만나는 모임’, 작품 속 배경 공간을 꼼꼼하게 탐색하는 답사팀 등의 소규모 모임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회성 행사들이 주는 단순한 교양거리의 수준을 넘어 지역민 스스로 해당 작가에 대한 준 전문적 태도를 갖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또 한편으로 상시적 운영될 수 있는 전형적인 프로그램으로 ‘창작교실’을 들 수 있다. 일부 문학관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창작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문제는 다른 문화센터들의 창작교실과 차이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물론 이 또한 문학관이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맡아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럽긴 하지만, 문학관의 정체성을 고려한 창작교실이라면 부분적으로 해당 작가의 작품을 이용한 변형된 형태의 실험적 창작방식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면 소설을 읽고 난 후의 심상을 시로 써 본다든가, 거꾸로 서사적 속성을 지닌 시의 내용을 서사 물로 재창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사이버문학의 다양한 형식실험들을 차용할 수도 있다. 즉 하이퍼텍스트 픽션 방식처럼 작가의 특정 작품의 주제와 모티프로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해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실험적 창작들은 결과로만 존재하는 작가의 정신세계와 작품을 자신의 존재방식과 관련하여 현재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 작가의 문학적 생명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문학과 타 장르와의 소통

특정 작가를 알리든, 특정 테마를 알리든 간에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의 개발은 타 예술장르와의 소통을 통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시와 음악의 만남이나, 시와 그림이 만나는 시화전 등과 같은 행사는 주변에서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 문학관은 특정 작가를 테마로 내세우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는 보다 특화된 방식이 필요하다. 예컨대, 작가의 시나 소설 등 작품을 읽고 난 심상을 그림이나 조각 등 미술적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다. 기회전과 작가의 생애나 작품을 소규모 극으로 전달하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연령별, 성별, 계층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작가의 생애를 극(劇)으로 이해하는 방식들도 높은 연령대에서는 소규모 전통 연극이, 아동들에게는 인형극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지역민이 참여주체가 되어 스스로 만들어 공연할 수도 있고, 전문인들이 공연 주체가 될 수도 있는 등 주체 측면에서도 세분화될 수 있다.

문학과 타 예술장르와의 이러한 소통 방식의 개발은 문학의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지역 내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문학관 프로그램 가운데 강진군 시문학과기념관이 운영하고 있는 ‘화요일 밤의 초대 손님’의 경우, 문학과 타 장르와의 소통은 물론 문학의 외연을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문학관이 단순히 문학인들만의 전유 공간이란 관념적 틀을 깨고, 미술인을 비롯해 국악인, 전통문화예술인, 대중음악인 등 모든 문화예술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회복케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3.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역 문학관은 그 지역민들의 참여의식이 문학관 운영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 문학관 운영이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도 연계되어야 한다는, 문화산업으로서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학관의 가장 큰 역할과 기능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이미지 만들기에 기여해야 한다. 즉, 문학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지역의 예술인들과 그네들이 창조한 예술작품을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벌이는 각종 전시와 공연 예술의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문학관 본래의 기능이 상승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문학관 운영의 롤 모델을 제시한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을 소개한 글이다.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동마을 영랑 김윤식 생가 입구에 자리한 시문학파기념관이 전국 문학관 운영의 롤 모델로 부상하고 있어 화제다. 강진시문학파기념관은 지난 3월 개관 이래 참신한 기획력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민은 물론 문단과 학계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중략>...

특히 시문학파기념관이 기획한 <이달의 시문학과 동인>과 <화요일 밤의 초대 손님>은 참신한 기획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달의 시문학과 동인>은 9인의 시문학과 동인 중 매월 한 명을 선정 시인의 삶과 예술세계는 물론 유가족들로 하여금 문단에 알려지지 않은

시인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박용철, 김영랑, 정지용, 신석정, 정인보, 김현구 시인을 조명했다.

그리고 <화요일 밤의 초대 손님>은 지역 문화계에서 처음 시도한 문학토크 프로그램으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밤 7시에 진행되고 있다. 작가 선정기준은 강진군에 주소를 둔 현지 거주자를 원칙으로 해 문단의 변방에 있는 지역작가들에게 자긍심과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중략>…

그동안 프로그램은 시인중심의 진행되었으나 이 달부터 문화예술계와 다문화가정으로까지 폭을 넓혀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25일 밤 7시 시문화과기념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여섯 번째 초대 손님은 국악인 고일석씨(52세, 제1회 국창대회 판소리 고법부문 명인상 수상)가 무대에 오른다.

<『연합뉴스』, 2012. 9. 20.>

위의 글은 문학관은 지역민들의 참여의식과 함께 그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무대요, 그것을 활성화하는 창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역민들이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문학관은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문학관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 공간이 자기들 삶의 여유 공간으로,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소득과 직결되지 않으면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문학관 행사의 주역으로 참여하게 하는 배려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문학관 시설의 활용

문학관을 찾는 관람객들은 그때까지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작가·시인의 문학세계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새로운 각도에서의 이해를 희망한다. 따라서 관람객들이 문학관을 찾아 자료들을 돌아보고 각종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지금까지 몰랐던 작가의 생애와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문학관은 주요한 자료를 수 하고 정리하여 보존할 뿐 아니라, 그 자료를 통한 작가·작품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술적 기능도 감당해야 한다. 문학관 공간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업은 품위와 높은 질이 우선되어야 설립 취지에 맞는 지속적인 문학행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문학관 가운데 서너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학관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치 못한 채 그 지역 출신 작가를 기리기 위한 전시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적극적인 시설 활용으로 문학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도 있어 다행이다. 만해마을(강원도)과 토지문학관(강원도)은 작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시문학파기념관(전남 강진)은 문학관 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012년 3월 5일 전남 강진군이 건립한 시문학파기념관은 1930년대 시문학과 시인으로 활동한 김영랑을 비롯해 용아 박용철, 정지용, 이하윤, 정인보, 변영로, 김현구, 신석정, 허보 등 모두 아홉 시인을 기리는 한국문학 사상 최초의 문과 문학관이다.

시문학파기념관은 시문학의 전유공간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유치해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예컨대 세미나실과 북 카페를 활용한 시낭송 교실이라든지, 인문학 강좌, 전국 규모의 학술 심포지엄 개최, 영랑문학제 등의 문학행사는 물론 청소년 통기타 교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멘토·멘터링 교실 운영, 문화·예술단체들의 각종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문학관이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문학파기념관의 시설 활용 방식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예술의 동반 성장에 기여해 문학관 운영의 본보기로 삼을 만하겠다.

IV. 나오며

지금까지 국내에 설립되어 있는 문학관의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토대로 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 등을 살폈다. 연구 결과 본 논문은 문학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족이나 지인을 만나는 모임’ 프로그램 개발 방안으로,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의 ‘이달의 시문학과 동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9명의 시문학과 동인(김영랑, 박용철, 정지용, 이하운, 정인보, 변영로, 김현구, 신석정, 허 보)의 유가족을 행사에 참여시켜 작가의 생애와 일화 등을 생생하게 전달, 관람객과 문학관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문학과 타 장르와의 소통에 대한 방안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타 예술장르와의 소통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의 ‘화요일 밤의 초대 손님’ 경우, 초청작가 선정 대상을 문학인에 국한치 않고 문화예술 전 분야로 폭을 넓힘으로써 문학예술의 외연을 확장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셋째,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방안이다. 문학관은 지역적 정체성을 전제하지 않고는 생명을 지속할 수 없다. 때문에 문학관이 주체적으로 지

역 내 학교 교육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넷째, 문학관의 시설 활용에 대한 방식이다. 국내 문학관의 유형은 작가 형 문학관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것은 전시물의 한계성과 프로그램 중첩, 재정적 압박 등을 가져와 문학관으로서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문학행사 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를 유치해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인 강진군시문학과기념관의 운영방식을 살폈다. 시문학과기념관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유치, 전국 문학관 운영의 본보기로 삼을 만하겠다.

끝으로 본 논문이 국내 문학관의 운영과 문학프로그램 개발에 미력 하나마 기여하길 바라며, 이 연구를 토대로 하여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덕수, 「문화산업으로서의 문학산업」, 『현대문학 이론 연구』 25, 2005.
- 김선기, 『남도 현대시문학 산책』, 전남대 출판부, 2007.
- _____, 「강진 시문학 공간의 문화콘텐츠화 연구-김영랑·김현구의 작품을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논문, 2012.
- 김수복 외, 『한국문학 공간과 문화콘텐츠』, 청동거울, 2005.
- 김창호, 「문학공간의 문화콘텐츠화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2010.
- 박덕규, 「문학관 조성과 문화산업」, 『문학관과 문화산업』,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단국대 출판부, 2007.
- 임영상, 「문화콘텐츠 개발과 인문학」, 『인문콘텐츠』 6, 2005.
- 임학순,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 창작소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델 연구」, 『인문콘텐츠』 6, 2006.
- 전상국, 「바람직한 문학관 운영방안 찾기」, 제1회 전국문학관대회 세미나 자료, 한국문학관협회, 2013.
- 정경운, 「한국문학콘텐츠의 활성화 방안 연구-국내 문학관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 이론 연구』 25, 2005.
- 조성면, 『한국문학 대중문학 문화콘텐츠』, 소명출판사, 2002.
- 한국문학관협회, 『문향을 따라가다-전국 문학관 찾아가기』, 2006.
- 한국문학관협회, 『2012 문학관 현황』, 2012.
-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역, 『문학관과 문화산업』, 단국대 출판부, 2007.

[Abstract]

A Study on Practical Methods of Managing Literature Museum

- with methods of managing Gangjin Poetic Literature Hall

Kim, Seon-ki

This study aims to examine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domestic literature museums and seek the methods of development contents for the activation of literature museum management.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was the program managed currently by Gangjin Poetic Literature Hall and it was to suggest practical methods of literature museum management through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regular programs, communication between literature and other genres, development of local programs and applications of literature museum facilit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four methods were obtained. First, the case of 'This Month's Simunhakpa Coterie' by Gangjin Poetic Literature Hall was presented as a model of achieving the success of program 'meeting with the bereaved or the acquaintance'. This program made the family members of 9 deceased Simunhakpa coteriees (Kim Yeong Rang, Park Yong Cheol, Jeong Ji Yong, Lee Ha Yun, Jeong In Bo, Byeon Yeong Ro, Kim Hyeon Gu, Shin Seok Jeong, and Huh Bo) participate in every program, introduce the poets' lives and

episodes and help the audience understand the poets and their literature.

Second, methods of communication between literature and other genres were suggested. Development of a variety of programs can be achieved through communication with other art genres. Therefore, Gangjin Poetic Literature Hall extended its program to the whole art areas as in its program 'Tuesday Night's Guest' and achieved the results of making local artists join this program.

Third, methods of developing local connection programs were suggested. Survival of literature museum depends on its regional identity. So this study proposed the need of developing connection program with local schools.

Fourth, methods of utilizing the facilities of literature museum were suggested. There are a prevailing number of author-type literature museums in Korea and it has caused limitation of exhibition items, program superimposition and financial pressure and then a smooth operation of literature museum cannot be expected. But, it is considered that poetic literature memorial hall established the regional identity, recovered the cultural homogeneity and presented a model of literature museum management through its appropriate application.

Finall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management of domestic literature museum and the development of literature program and the further studies based on this study will be continued.

Key Words : Literature Museum, Literature Program, Gangjin Poetic Literature Hall

